

# 도, 내년 예산 건전화·효율성 중점

### 사전절차 강화·부진사업 세출구조조정, 행사·축제 효율화 추진 미래 성장기반 마련 위한 신규시책 발굴 등 전략적 재원 배분 중점

도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경영평가가 부진한 출연기관 등에 대해서는 운영비 등을 삭감할 예정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건전화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의 행사와 축제를 억제하기 위해 '행사·축제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신규 행사나 축제의 경우 민간위탁회 등에서 타당성 등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투자심사 대상을 현행 5억원(시군 3억원) 이상에서 3억원(시군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 연계해 '재정사업평가 및 보조사업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은 세출구조 조정을 우선 검토하고, 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 부진기관은 운영비 삭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부서 간 시간의수당과 무

기계약·기간제 근로자 보수, 물품구입단가 등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부서 경상비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중앙공모사업의 경우 신청 전 재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도정 방향과의 연계성, 재정지출 효과 등을 심사하고, 회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미편성할 방침이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공기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

기금특별회계가 자치단체 기금으로 전환된다.

기금으로 전환되면 일정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조성과 1년간 운영상황을 나타내는 운용으로 편성되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일정(20%)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 없이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다.

최병관 기획관리실장은 "삼라능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시책을 발굴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부진사업은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기록원, IMF·IBRD 기록 공개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8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지원한 국제금융기구(IMF·IBRD), 기록으로 보다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기록물은 동영상 6건, 사진 18건, 문서 14건 등 총 41건으로 23일부터 공개된다.

국제통화기금(IMF)·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가입 및 차관도입, 제4차 IBRD·IMF 서울 총회,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발생 및 극복 등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중 1997년 12월 한국정부 경제프로그램 이행계획과 향후 3년간 155억 SDR(IMF의 특별 인출권, 210억 달러) 규모의 지원요청 내용이 담긴 한국은행 총재와 재정경제원 장관 명의로 된 IMF 의향서(1차)도 있다. /뉴스



2016 을지연습이 22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실무자들이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회의를 갖고 있다.

## 박 대통령 “北 도발, 실제 치명적 타격 의도”

“정부, 내부 분열·갈등 조장에 단호히 대처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제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이것은 북한의 핵개발과 각종 도발 위협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우리 영토와 국민들을 타격함으로써 실제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철저한 방위태세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016 을지연습” 첫날인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의 탈북과 관련

해서도 “특히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가고 있고,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주시기 바란다”며 “정치권에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내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은 을지연습을 비난하면서 금년에는 즉시적이고 무자비한 핵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군사적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

미연합 훈련이 없을 때도 도발을 저지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이것은 북한의 핵개발과 각종 도발 위협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우리 영토와 국민들을 타격함으로써 실제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철저한 방위태세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016 을지연습” 첫날인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의 탈북과 관련

미연합 훈련이 없을 때도 도발을 저지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이것은 북한의 핵개발과 각종 도발 위협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우리 영토와 국민들을 타격함으로써 실제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철저한 방위태세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016 을지연습” 첫날인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의 탈북과 관련

## 박용준 도 신임 감사관 발령

전북도는 신임 감사관에 익산출신 박용준(45) 전 감사원 감사관을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신임 감사관은 익산 출신으로 원광고와 원광대학교를 졸업하고 통일부 행정사무관을 거쳐 감사원에서 근무해왔다.

전임 김용배 감사관(54)은 감사원 심사관리관실 심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민형 기자



## 도, 해양수산 발전계획 짚는다

### 수립 연구용역 계약 체결... 내년 7월까지 최종보고회

전북도가 해양수산업 발전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해양수산 분야 중장기 비전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전북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정부출연 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사전에 원가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이어 오는 9월 착수보고회, 2017년 1월 중간보고회, 7월까지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번 용역으로 그동안 새만금 간척사업 등 대단위 국책사업으로 위축된 도내 수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도 해양수산 분야의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수립과 국가예산 발굴 등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논리개발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도는 '전북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전복여건 및 지역특성 등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용역 추진상황 등을 심도 있게 살펴 관련 의견을 적절하게 제시할 계획이다.

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전북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책수립과 국가사업의 적극적 발굴로 도 해양수산 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전북도, 추석 앞두고 도로 정비 '완료'

전북도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로 덧씌우기와 긴급보수정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정비를 최근 완료했다.

또 배수불량시설과 포장도로 포트홀도 정비했고, 터널 내 사고예방을

위한 터널 세척과 조명등의 LED교체도 끝냈다.

아울러 추석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특별도로정비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도로관리 및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내일 도쿄 개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오는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고 네케이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운병세 외교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이 24일 3차 회의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외상은 23일에는 운 외교장관과 왕 외교부장을 초청한 가운데 만찬을 베풀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중일은 23일과 24일 양일간 회담도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뉴스

운 장관과 왕 부장 간 회동에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중심으로 양국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한중일은 도쿄 외무성에서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 아키바 다케오(秋葉剛明)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류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위급회의를 열고 3개국 외교장관회의 일정을 논의했다. /뉴스

## 제10회 전국장애인가요제 안내

장애인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분야 참여 확대를 위하여 매년 장애인 가요제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 ① 참가자 신청 : 등록 장애인 누구나 (16세이상)
- ② 신청방법 : 대중가요 1곡 선정하여 전화, 방문 팩스로 신청가능 (8월 31일까지)
- ③ 참고 : 도민누구나 관람가능. 행운권 추첨하여 상품 증정함

- \* 일시 : 2016년 9월 3일 (토) 오후 4시 30분
- \* 장소 : 전주 풍남문 문화광장 (남부시장 입구)
- \* 주최 :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 \* 후원 : 전라북도, 한국연예인협회 전북지부, 전북장애인 신문사



대회본부장: 김양욱



MC: 최현아(가수 겸 MC)

### 전북 장애인 복지문제 연구소

T. 286-6678 F. 287-6678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